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1)

거리의 풍채를 들구는 수삼나무

지금 평양의 거리거리는 짙은 녹색으로 단장되어 있다. 풍치 좋은 갖가지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던져주며 오가는 사람들을 반겨주고 있다.

국가에서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해 마련해준 리명거리의 도로양편에도 수삼나무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사려니움처럼 늘어서 있다. 보통강을 옆에 낀 청류관의 앞도로에도 키높은 수삼나무들이 하나의 나무구획을 이루고 있다.

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리의 풍경을 더욱 돋구어 주고 있다. 수삼나무는 습기를 좋아하며 삼나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수삼나무는 보통 높이 35m, 직경 2m이상 자라는 거목이다. 빨리 자랄뿐 아니라 줄기가 굵고 매끈하며 송송피해

도 없는 수삼나무는 리용가치가 대단히 높다. 또한 나무가치가 고깔모양이며 잎이 부드럽고 단풍이 곱게 드는것으로 하여 원림수종으로 가치가 크다. 수삼나무는 뜻이 깊은 나무이고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속에 오래전부터 친근하게 자리잡은 나무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최고사령부와 전력정원에서 곱들여 가꾸신 한그루의 수삼나무로부터 시작되어 온 나라에 수삼나무림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 수삼나무들이 이제는 하늘을 찌를듯이 자라서 사람들에게 푸른 일세를 한껏 펼쳐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민요 《맑은 아침의 나라》는 민요 《이팔청춘가》를 시대적미감에 맞게 개작한 노래이다. 이 노래는 1958년에 창작된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에서 주요 무작품으로 형성되면서 사회주의조국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사가 개작되고 노래의 제목도 《맑은 아침의 나라》로 고쳐지게 되었다. 1988년에 노래는 다시 육류금명창으로 재형성되면서 두개 절이었던 가사가 세계

적으로 보충완성되었다. 민요 《맑은 아침의 나라》는 조국의 위상을 세상에 자랑하려는 지향과 오랜 세월 남아있던 락후와 빈궁의 흔적이 사라지고 어디가 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쳐흐르는 조국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 12/8박자의 굿거리장단을 타고 흐르는 노래의 선율은 크게 두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선율은 첫 부분에서부터 가사와 밀착된 짧은 음들을 적극 리용함으로써 보다 밝고 유창하게 흘러간다. 둘째 부분에서는 높은 음구에서 동도호르다가 점차 아래로 하강 진행하면서 악곡을 마무리하고 있다. 민요 《맑은 아침의 나라》는 우리 민족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감명 깊게 노래한것으로 하여 민족음악유산의 하나로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본사기자

무더위와 비, 뜨거운 햇빛으로 특징지어지는 장마철기후는 사람들의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장마철에는 습하고 온도가 높기때문에 몸안에서 생길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열이 축적되어 악하게 진행된다.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는 병균들의 활동과 번식이 활발한 계절로써 식로품이나 음식물이 빨리 변하므로 식중독이나 소대장염에 걸리기

쉽다. 또한 장마철에는 무더위로 하여 땀을 많이 흘리며 특히 삼복더위때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난다. 그러므로 장마철에는 그에 맞게 건강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우선 물을 끓여 마셔야 한다. 이 기간에는 물이 오염될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대장염이 오지 않게

반드시 끓여서 식혀 마셔야 한다. 또한 장마철에 미생물과 세균이 잘 번식하는 조건에서 음식물을 만들고 보관하는데서도 주의하여야 한다. 습한 대기는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의 악화를 가져올수 있다. 따라서 날이 개이면 창문을 열어 방안공기를 건조시키고 외부자리를 햇빛에 말려줘야 한다. 본사기자

장마철과 건강관리

이리하여 그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반빛아치의 말을 들은 아씨는 그러지 않아도 남편의 신상이 걱정이었는 데 마침이라고 문종이 모르게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닮았다. 그 덕에 봉사는 요즈음 매일 고기반찬에 다 가장할뻔발을 먹었다. 뿌듯하던 눈이 점차 맑아지고 온몸에 기력이 넘치기 시작했다. 밤이면 그는 초막안에 두툼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 코노래를 불렀다.

그의 눈앞에는 서울에서 사던 기생 명월이의 아릿다운 자태가 떠올랐다. (고정! 그렇게 두 살똥이 굴러다 거참...) 그는 괜히 속이 싱숭해서 저도 모르게 입맛을 췌다 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반빛아치가 날라온 더운밥과 국으로 배를 불리고 초막을 나섰다. 생각 같아서는 식곤증이 나 좀 풀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럴수가 없었다. 별의 별 친척나무쟁이들이 뺨질나게 올라와서는 술술 맴돌다가 가곤 했던것이다. 구실은 심심해할까봐 말동무를 해주려고 그런다고 했지만 실은 러모살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었다. 봉사는 그들의 소행이 패색했으나 시끄러운 말발에 무고코실지 않아 낮에는 뭘 수룩 보지않고 나서서 상제 구실을 착실히 하느라 했다. 마침 간밤 내린 눈으로 온

산관은 은세계를 펼친듯이 눈이 부셨다. 이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내린 소담한 눈이었다. 해가 뜨거나 올라와서 저의 눈발때쯤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다박술이 소담하게 자란 뒤엔 잠판목술에서 부스러기소리와 함께 노루 한 마리가 경총 뛰어나왔다. 봉사는 처음 너무나도 의외라 휘둘 놀랐다. 노루도 사람이 있으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지 겁먹은 눈길로 한동안 못박힐듯 서서 마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곧 사태를 알아차리고 후닥닥 돌아서 내뿜었다. 현대 그는 제대로 온신을 못하는 꼴이었다. 앞발로 눈속만 허비하며 한걸음도 세뼉히 나가지 못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왼쪽 볼기쪽에 벼룩한 화살이 한대 박혀있었다. 아마 사냥군에게 쫓긴 모양이었다. (이게 웬 떡이야?) 봉사는 러모살이하는 상제의 몸이라는것도 까맣게 잊고 노루를 향해 뛰어났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있던 대

지쟁이로 허우적거리는 노루의 코사둥이를 힘껏 내리쳤다. 어찌나 세게 쳤던지 대지쟁이가 두동강이 나고 노루는 《뻑!》 하는 비명과 함께 그자리에 푹 고꾸라졌다. 봉사는 그런중에도 누가 보지 않나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나서 아직 숨이 채 끊어지지 않은 노루를 덥석 끌어안았다. 어쩔가 잠시 망설이던 그는 당장 그놈을 처치할 방법이 없어 눈속에 파묻기로 했다. (참 그렇지.) 두손을 돌려 한창 눈을 파헤치던 그는 문득 노루피가 기력을 돋구는데는 그저그만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얼른 옆구리에 찌던 장도칼을 꺼냈다. 그리고는 목덜미에 제일 굵은 동맥을 더듬어 끊었다. 심장이 아직 멎지 않아 대줄기같은 피가 솟구쳐올랐다. 그는 얼른 거기에 입을 가져다댔다. 꿀꺽꿀꺽 더운 피가 목안으로 흘러들 때마다 짙짙하고 비릿한 냄새가 비위를 건드렸으나 그는 눈을 꼭 감고 뒤사발 같이 삼켰다. 그런 다음 노루를 흔채기에 넣고 그우에 눈을 덮었다. 흔적이 날가보아 솔가지로 꺾어 비자루처럼 해가지고 버드러거린 곳을 대충 쓸어 자국을 메꾸었다. 노루피를 과하게 마신탓인지 갑자기

머리가 펑 돌며 속이 흥건해났다. 갑자기 어디서 인기척이 나는것 같아 그는 황겁히 모지않고 올라가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태연하게 서있었다. 뻑! 뻑! 뻑! 눈발은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음, 일가부네기들이 올라오는구나.) 정신사님이 아니시우? 《음, 날세. 그새 잘 있었나?》 정도령은 허죽이 웃으며 마주 다가왔다. 《이제 얼마만이시우? 왜 그사이 몸뚱이 안하소?》 봉사는 그가 나타난것이 저이기 반가운 형그러운 소리를 질렀다. 《음, 그렇게 되었네. 근자에 묘자리 보이달라는 청이 하도 많아 좀 나다니다니 언제 올새가 있어야지.》 정도령은 이렇게 대꾸하며 그의 옷매무시를 찬찬히 살폈다. 《헌데 자네 웬 일인가? 옷주제가 말이 아니구만.》

봉사는 속이 뜨끔하였으나 태연한 낯색을 지었다. 《밤 초막에서 입은채로 딴달라니 그럴수밖에 더 있소.》 《만은 그래.》 정도령은 알겠다는듯이 턱을 조아리며 내쳐 물었다. 《지쟁이 왜 그 모양인가?》 《예, 이간...》 봉사는 당황해하며 지쟁이를 추슬러보았다. 《간밤에 묘소를 돌아보다가 눈에 발이 밀리러져 넘어지는통에 그만...》 《오, 그렇겠군.》 정도령은 여전히 그의 옷주제에서 더군데 떼지 않은 채 한술 더 떴다. 《아이구 저런! 옷에 피까지 게발렸구만.》 당황함에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던 봉사는 제격 그럴듯한 구실을 댔다. 《삼시 나물죽만 먹다보니 기력이 허해져서 아침마다 코피를 쏟치우.》 《거참. 안됐네 그려.》 정도령은 여전히 그놈을 눈으로 훑어보며 웃으며 동정하는체 했다. (아이구! 이놈의 능구렁이가 다 보았구나.) 봉사는 그의 이런 행동에서 그가 이미 자기정신을 다 지켜보았다는것을 느껴졌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정도령은 오늘 오래간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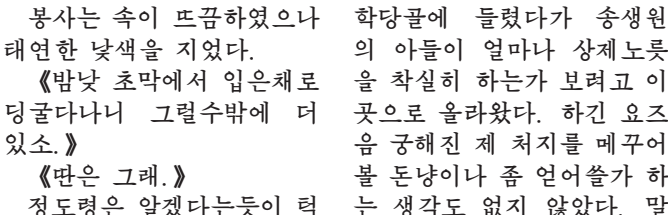
조선화 《소물이군》 (김두량 작)

조선화 《소물이군》과 김두량

조선화 《소물이군》과 김두량

김두량은 18세기 전반기에 실학사상의 영향에 발전한 사실주의적회화양식을 대표하는 화가의 한사람이다. 《소물이군》, 《사계절》, 《월야산수도》, 《개》 등은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명작들이다. 특히 한여름의 낮 쉼철에 버드나무에 소를 매놓고 나무 밑에서 깊이 잠든 소물이군의 모습을 형상한 조선화 《소물이군》은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명화중의 명화이다. 작품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봉건적인 착취와 압박의 주되는 대상으로 되고있던 농민들의 고달픈 생활처지와 그속에서 억압을 견뎌내고 소박한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 소물이군은 비들가지가 실실이 늘어진 나무 그늘아래의 풀판에 누워 온갖 시름을 잊고 깊이 잠들

어었다. 적삼 앞자락과 바지 끈까지 다 풀어헤친채 배를 드러내놓고 세상모르게 곤히 잠든 모습을 보노라면 배가 가벼이 오르내리는것 같기도 들리는것 같아 한없는 친근감을 자아내며 저도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피어난다. 한편 화면중심에 배를리먹은 풀을 조심스레 새김질하며 자기 주인이 깨어날까 두려워 커다란 눈을 굴리는것 같이 큼직하고 생동하게 그려진 황소의 모습은 부림소의 온순하고도 힘센 기질과 특징을 잘 표현하면서 소를 아끼고 정성들어 지우는 소물이군의 애타한 숨씨를 느끼게 하여주고 있다. 김두량은 농민생활에 가까이 접근하여 거기에서 묘사대상을 찾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회화예술의 주제명의를 확대하고 사실주의적화법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김은철



학당골에 들렀다가 송생원의 아들이 얼마나 상제노릇을 착실히 하는가 보려고 이곳으로 올라왔다. 하긴 요즈음 궁핍한 제 처치를 메꾸어 볼 돈냥이나 좀 얻어올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말하자면 행상하는 날 잠깐 해보았던 그 명상을 실천에 옮겨보자는것이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오솔길을 따라 올라오던 그는 노루발자국이 보이길래 무심결에 눈여겨보았다. 뒤쪽 발 하나를 끌면서 간 흔적이 뚜렷했다. (아하, 이놈이 밭쪽 하나가 상했구나.) 정도령은 호기심이 부쩍 동해 발자국을 따라 걸음을 빠르게 늘렸다. 노루는 풍고 뚝뚝도 송생원의 묘지쪽으로 달아났다. 이때 갑자기 먼발치에서 무슨 투닥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애처로운 노루울음소리도 들려왔다. 그는 번개치듯 하는 예감에 솔로기위에 몸을 숨겨가면서 부리나케 훑아올라가보았다. 아니나다를까 노루목을 타고있는 봉사가 그놈의 피를 한참 빨아 먹고있는중이였다. 그는 놀레우지 않으려고 잔술뒤에 숨어앉아 그가 일을 다 처리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화

노루친 몽둥이 3년 우리다 (3)

글 리유근, 그림 채대성